

## 지방자치·종합

## 민주 광주 동·서구을 위원장 누가 맡나

내일부터 공모… 박주선 “민주당 복당하겠다”

민주통합당이 4일부터 사고 지역 구인 광주 동구와 서구을 지역위원장 선임 결과가 주목된다.

2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사고 지역구인 동구와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를 시작해 이달 내로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동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박주선 의원, 문재인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돋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양형일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무소속이어서 복당 절차를 밟아야 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다. 특히 동구의 무게 중심이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게 솔리는 분위기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복당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주선 의원은 “국회와 민주당 내에서 할 일이 많다”며 “민주당의 유일한 적자로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지역위원장은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동구청

장 입후보자들도 지역위원장 선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구 을은 김영남 광주시의원, 김 성숙 전 광주시의원, 이상갑 변호사, 서대석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서구을의 경우 동구와 비교해 거울급 인사가 없어 제3의 인물이 낙점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역정 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친노(親盧) 인사가 지역위원장을 맡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를

강조하는 상황인데다 ‘친노 이미지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계파를 대변하는 인물을 낙점하기는 어려울 것인 분석도 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이 지역위원장을 맡지 않겠느냐”며 “특히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갈등과 대립, 분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인선은 지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조호권 “광주·전남발전협의회 만들자”

광역단체장·의회 참여



행정협의회를 확대 발전시켜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가 참여하는 광주·전남 상호협력·상생발전협의회’ 발족을 제안했다.

조 의장은 이날 열린 제21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신규사업을 발굴,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유명무실해진 광주·전남 광역

이의 증대를 위해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0년 11월 22일 창립한 전남권 광역의회 입장단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목적으로 맞게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광주시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늦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호남발전과 시·도민의

## 사이버선거감시단 호남에 편중 배치

## 전국 125명 중 37명… 민주 김현 의원 지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호남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지역편향적인 인력 배치로 공정선거에 대한 서비스를 불리워 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은 2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

과, 제18대 대선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125명)이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이 광주(13명), 전남(12명), 전북(12명) 등 호남지역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영남지역은 부산 3명, 경남 4명, 경북 6명, 울산 4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영남지역의 경우 호남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에도

운영인력은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호남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선관위의 선거 중립 의지를 의심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선관위는 대선이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도별 인구수 대비 또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배치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는 2일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조정환(육사33기·57) 대장을 내정했다. 또 권혁순 합참 군수지원부 본부장(중장)과 김 요환 육군참모차장(중장)을 각각 대장으로 급진시켜 제3군사령부와 제2작전사령관에 각각 내정했다.

조 신임 총장은 강원 출신으로 제22사단장,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육본 정보작전부부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 육군참모총장에 조정환



정부는 2일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조정환(육사33기·57) 대장을 내정했다. 또 권혁순 합참 군수지원부 본부장(중장)과 김 요환 육군참모차장(중장)을 각각 대장으로 급진시켜 제3군사령부와 제2작전사령관에 각각 내정했다.

/연합뉴스



## 복구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일 태풍 불라벤 피해를 입은 신안군 하이며 피해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 지사는 이날 복구 중인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주민 간담회도 가졌다.

(전남도 제공)

檢, 8천만원 수수 혐의 박지원 불구속 기소

## 박 “명백한 야당탄압… 진실 밝힐 것”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달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께 목포의 한 호텔 부근 길에서 전 비서관을 통해 솔로몬자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께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자축은행 오윤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로 3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지난해 3월9일 보해자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으며 안 받은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받아 국민과 당원, 민주당 의원들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그동

안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이나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야당탄압 이자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용 표적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언론의 보도가 활발한 시기에 흘리고, 헛발질 수사로 국민의 비난이 예상되는 수사결과는 언론보도가 지극히 제한된 주석 연후를 앞두고 발표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광주서 ‘끝나지 않는 역사’ 인혁당 추모전

## 인권평화재단, 5~28일 카톨릭센터서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추모하는 전시회가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 가톨릭센터에서 열린다.

4·9통일평화재단과 광주인권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꽃이 되어 바람이 되어’전은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행장의 이슬로 사라진 희생자들의 초상화, 생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일기 메모, 편지 등이 선보인다. 한 사형수의 미망인이 눈물로 쓴 글과 아버지를 살해한 유신 정부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아들의 절절한 글이 소개된다.

희생자 구명을 위해 애를 쓴 고 김수환 추기경의 탄원서와 당시 대법원에서 사형을 유일하게 반대한 이일규 판사의 소수의견서 등 사료도 공개된다.

민족미술인협회 작가들이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넋을 위로하는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 개막식은 5일 오후 5시 가톨릭센터 1층 로비에서 인혁당 사건 유족과 천주교 광주대교구 육현진 주교, 4·9통일평화재단 박종기 이사, 5·18기념재단 김준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무(법원인가) 입찰에서 평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근린시설·근린주택

▷동구 소재동 준주거지역 5층상가주택 대지561㎡ 건물1440㎡ 김정기12억4천 최저가8억7천

▷서구 치평동 역세권 5층상가주택 대지230㎡ 건물716㎡ 김정기7억5천 최저가6억2천

## 공장

▷북구 용봉동 용봉IC근 2층단독주택 대지 160㎡ 건물193㎡ 김정기1억1천3백 최저가7천9백

▷남구 봉길동 2층주거지역 단독주택 대지251㎡ 건물152㎡ 김정기1억9백 최저가7천6백

▷남구 칠성동 주거지역 단독주택(전원주택적합) 대지505㎡ 건물140㎡ 김정기1억9천3백 최저가8천3백

▷장성 흥정면 관리지역 단독주택 대지823㎡ 건물235㎡ 김정기1억1천 최저가7천8백

▷북구 용진동 대지2315㎡ 건물1543㎡ 김정기 22억7천4백 최저가18억2천

▷장성 통화면 대지6300㎡ 건물1365㎡ 김정기 14억2천 최저가6억3천5백

## 토지매매

▷동구 내남동 주거지역 도심근교(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750㎡

▷무안 해제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 전망 좋음 전3643㎡ 전3643㎡ 전3643㎡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탑공인증개사

(서구 광천동 650-205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금매물건 다양확보

1)화정동 화정역세권, 4층 원룸, 1층상가, 원룸18개, 토지16㎡, 건물749㎡, 남향, 위치최고, 매5억5천만원/보증금2000만원/월세360만원, 월1억3천만원

2)화정동 추선외관인근, 4층, 상가주택, 1층상가, 원룸18개, 토지260㎡, 건물520㎡, 남향, 위치최고, 매6억5천만원(보증금4000만원)/월세350만원, 월1억5천만원

3)쌍촌동 서광초인근, 4층, 상가주택, 1층상가, 원룸18개, 토지260㎡, 건물749㎡, 남향, 위치최고, 매5억5천만원(보증금3000만원)/월세425만원, 월1억6천만원

4)쌍촌동 쌍촌역세권, 원룸 3층 원룸12개 투룸6개 토지300㎡, 건물550㎡, 남향, 위치최고, 매5억5천만원(보증금3000만원)/월세350만원, 월1억3천만원

5)쌍촌동 쌍촌역세권, 4층원룸, 최고급인집, 원룸11개, 토지185㎡, 건물372㎡, 남향, 공실없음, 매5억4천만원(보증금8000만원)/월세400만원, 월1억3천만원

6)금호동, 4층, 원룸, 남향, 원룸6개, 투룸6개, 안전, 남향, 토지227㎡, 건물370㎡, 남향, 위치최고, 매5억8천만원(보증금12000만원)/월세390만원, 월1억3천만원

7)동천동, 4층, 상가주택, 푸른마을6단지, 토지234㎡, 건물400㎡, 1층상가, 원룸12개, 투룸3개, 매6억8천만원(보증금1억6천만원)/월세20만원, 월2억

8)동천동, 4층, 상가주택, 푸른마을6단지, 토지234㎡, 건물400㎡, 1층상가, 원룸12개, 투룸3개, 매6억8천만원(보증금1억6천만원)/월세20만원, 월2억

9)신안동, 4층, 원룸, 전남대정문, 원룸12개, 투룸6개, 남향, 공실없음, 토지260㎡, 건물386㎡, 매6억8천만원(보증금3억)/월세410만원, 월1억3천만원

10)화정동, 4층, 원룸, 신축, 원룸14개, 쓰리룸2개, 남향, 토지250㎡, 건물435㎡, 매6억5천만원(보증금3억)/월세300만원, 월1억3천만원